

STS 6요인 기질검사

Six-factor Temperament Scale

연구개발 | 최은실, 윤진영, 최해훈, 김수아

영·유아용

결과보고서

아동 정보

아 동 이 름	SAMPLE
검 사 일	2026 년 05 월 29 일

성 별	남 / 여
생 년 월 일	2021 년 05 월 01 일

작성자 정보

작성자 이름	SAMPLE2
출 생 연 도	1990 년

아동과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	--





STS 6요인 기질검사 Six-factor Temperament Scale 영·유아용 결과보고서

2026/05/29

SAMPLE

남

만 05세00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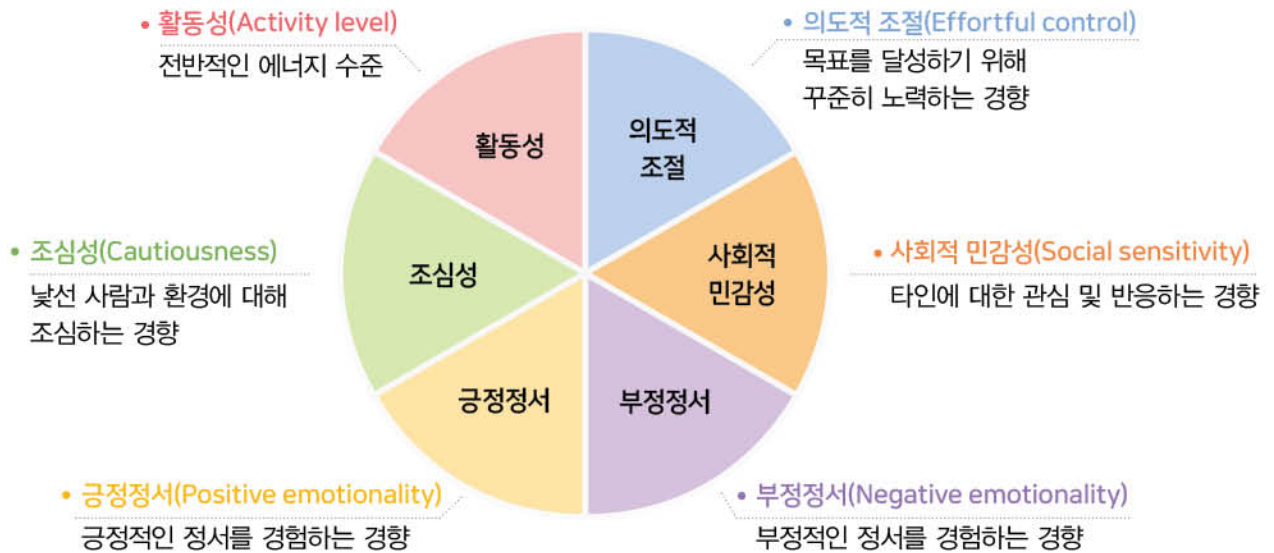
기질(temperament)이란?

생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정서, 행동, 주의 반응에 대한 개인차로, 성인기 성격의 토대가 되는 개인적 특성입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시간이나 상황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본 검사는 최신 기질 이론에 기반하여 6개의 기질 요인

활동성, 조심성, 긍정정서, 부정정서, 사회적 민감성, 의도적 조절을 측정합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 구성



각 6개 요인별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낮음		높음
활동량이 적은, 안전한, 소근육 신체 활동을 선호하는, 차분한	활동성	활동량이 많은, 열정적인, 대근육 신체 활동을 선호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도전적인, 적극적인, 겁이 없는, 적응이 빠른, 대담한, 주도적인, 모험심이 강한	조심성	조심성이 많은, 수줍어하는, 안전을 중시하는, 실수가 적은, 소극적인, 경계심이 많은
긍정적 정서 표현이 적은, 못마땅한, 시큰둥한, 애정표현이 적은, 쉽게 만족하지 않는	긍정정서	낙관적인, 유쾌한, 행복한, 긍정적인, 만족스러운
안정된, 침착한, 이완된, 참을성이 있는	부정정서	예민한, 민감한, 감정에 충실한, 기분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개인적인, 타인의 영향을 덜 받는, 독립적인, 외로움을 덜 타는	사회적 민감성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주변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함께하는 놀이를 선호하는, 공감적인, 사교적인
관심사가 다양한, 욕심이 없는, 현재에 만족하는,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의도적 조절	인내심이 강한, 꾸준히 노력하는, 끈기 있는, 주의집중력이 높은, 성실한



STS 6요인 기질검사 Six-factor Temperament Scale 영·유아용 결과보고서

2026/05/29

S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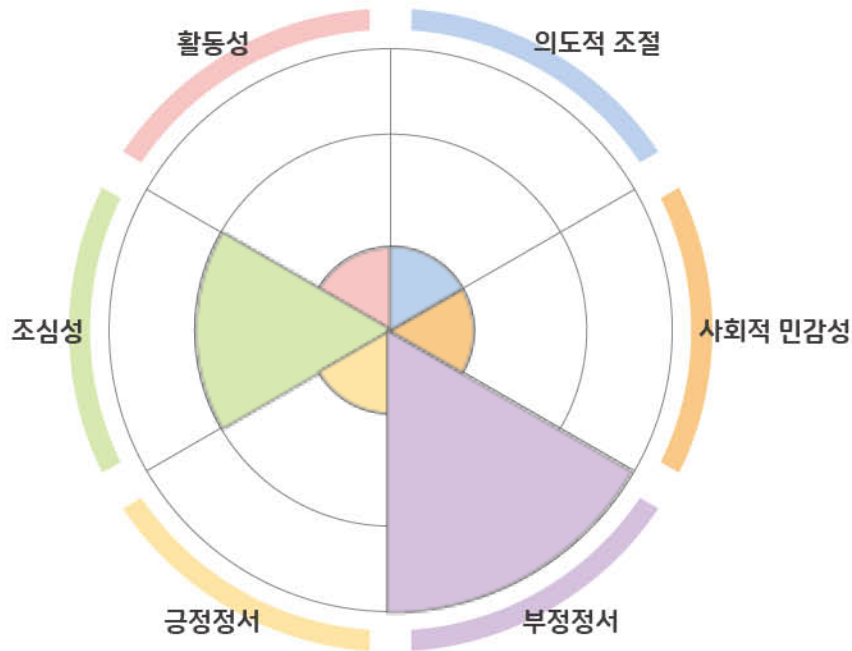
남

만 05세00개월

아동의 기질검사 결과



- 기질이란 타고나는 생물학적 반응/행동의 경향성으로 측정 결과에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 아래의 결과를 활용하여 고유한 특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인명	수준	원점수	T점수	백분위
활동성	낮음	23	40.8	23.4
조심성	중간	19	53.8	69.4
긍정정서	낮음	24	41.4	21.4
부정정서	높음	23	58.2	81.9
사회적 민감성	낮음	16	36.6	10.1
의도적 조절	낮음	23	42	22.6

점수에 대한 이해



수준	낮음	중간	높음
T점수 범위	45 미만	45 ~ 55	55 초과

· 수준

기질 6요인은 T점수를 기반으로 낮음, 중간, 높음 3개의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질 수준에 대한 해석은 최신의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 T점수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10인 표준점수로서 50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위의 점수는 평균점보다 높고, 아래의 점수는 평균점보다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 백분위

전체 집단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한 개인의 점수가 아래에서부터 몇 번째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백분위 80은 100명 중에서 자기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79명, 높은 사람이 20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 Six-factor Temperament Scale 영·유아용 결과보고서

2026/05/29

SAMPLE

남

만 05세00개월

1. 활동성

SAMPLE 아동의 활동성 수준은 '낮음'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편입니다. 활동량이나 움직임이 많지 않아 주변 사람들로 부터 얌전하다는 평을 듣곤 합니다. 또한 행동이 느린 편으로, 위험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신나는 놀이를 하는 경우에도 부산스럽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활동성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다소 소극적이고 답답한 아이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아이는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얌전하고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키우기 쉬운 아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극을 경험하고 때로는 모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발달 수준 및 흥미에 맞는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준비하고 참여해 보도록 권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낮음] 수준의 활동성을 보이는 아이를 위한 양육 Tip

- ① 아이를 다그치거나 재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자의 조급함이나 재촉은 아이를 압박하여 더욱 움츠러들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탐색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 ② 아이가 머뭇거리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양육자가 먼저 도전하고 시도하는 모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 ③ 아이가 혼자서도 조용히 잘 논다고 내버려두기보다는 아동 발달 수준 및 흥미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해 보도록 권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발한 탐색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소근육, 대근육, 언어, 사회성, 인지 등이 발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놀이감을 제공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놀이 뿐만 아니라 산책, 놀이터, 문화센터 등과 같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가면서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 ④ 많은 활동이나 경험, 또는 (고된) 스케줄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세심히 관찰하여 아이가 너무 지치지 않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STS 6요인 기질검사 Six-factor Temperament Scale 영·유아용 결과보고서

2026/05/29

SAMPLE

남

만 05세00개월

2. 조심성

SAMPLE 아동의 조심성 수준은 '중간' 수준입니다.

낯선 자극이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좋은 편입니다. 때로는 어색해하거나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혹은 양육자가 곁에서 도와주면 비교적 빨리 상황을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익숙해지면,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조심성, 활발함과 적극성이 적절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간]수준의 조심성을 보이는 아이를 위한 양육 Tip

- ① 아이가 조심스러운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 이 모두를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양육자의 속도에 맞춰 아이를 재촉하거나 다그치기 보다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행동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② 대부분의 아이는 발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대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유·아동기에는 곤충, 괴물, 악당, 교통사고, 부모님과의 이별,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전쟁 등을 무서워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이 시기 동안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두려운 감정이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면 이를 무시하시거나 꾸중하기보다 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주며 안심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 ③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가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새로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사귀고자 할 때 양육자의 격려와 지지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 Six-factor Temperament Scale 영·유아용 결과보고서

2026/05/29

SAMPLE

남

만 05세00개월

3. 긍정정서

SAMPLE 아동의 긍정정서 수준은 '낮음' 수준입니다.

아이는 평소 긍정적 정서 표현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분명 기분이 좋을 만한 상황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양육자는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답답함을 느끼고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나 또래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긍정 정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로 부터 조용하고 침착한 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상황에서 무뎌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이의 진짜 기분을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아이다운 활력이나 생동감이 부족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아이의 작은 정서 표현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이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양육자를 보고 모방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정서 표현의 모델이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낮음] 수준의 긍정정서를 보이는 아이를 위한 양육 Tip

- ① 아이의 마음을 양육자가 읽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경험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정을 읽어줌으로써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 ② 양육자는 아이가 좋아할만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제공해줌으로써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동기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 ③ 아이가 자신이 느끼는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가르치고, 혹은 동화책이나 영상을 보면서 등장인물의 기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평소 양육자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에 오니 정말 신나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함께 노니 정말 즐거웠어.”, “엄마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긍정적 감정이나 애정, 고마움 등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아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모델이 되어주는 것은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⑤ 아이가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했을 때, 양육자는 아이의 변화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며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유치원에서 정말 신나는 일이 있었구나.”와 같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 Six-factor Temperament Scale 영·유아용 결과보고서

2026/05/29

SAMPLE

남

만 05세00개월

4. 부정정서

SAMPLE 아동의 부정정서 수준은 '높음' 수준입니다.

아이는 예민하고 섬세한 성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솔직하고 강하게 표현하는 편입니다. 특히, 호불호가 분명하고, 화가 나거나 속상한 마음을 자주 드러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아이가 까다롭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이는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혹은 강하게 부정적 정서를 느끼곤 합니다. 또한, 한 번 기분이 나빠지면 그 지속 시간이 길게 유지되는 때가 많습니다. 보통 짜증을 내거나 징징거리는 식으로 표현하며 달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양육자 역시 지치고 힘들어지며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혼내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 아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자와 함께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해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의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하고 공감해주면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는 지금 보다 훨씬 유쾌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음] 수준의 부정정서를 보이는 아이를 위한 양육 Tip

① 아이가 화를 내거나 칭얼거리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혼을 내거나 참으라고 요구하기보다 왜 화가 났는지, 속상해진 이유는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여 세심히 살피고 알아채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면, 아이에게 공감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② 유아기는 뇌의 정서조절 시스템이 발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 혼자서 정서를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반드시 양육자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정정서가 높은 경우, 다른 아이에 비해 부정적인 단서를 보다 민감하게 알아채며 또한 사소한 부정적인 자극에도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부정적 정서에 휩싸인 채 지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아이가 과도하게 울거나 화를 낼 때는 우선 진정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진정되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세요.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격해진 감정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④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을 때 울음이나 짜증, 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즉,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양육자의 언어로, 그리고 아이의 언어능력이 발달하면서 아이 스스로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분이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줄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⑤ 아이가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했을 때, 양육자는 아이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울지 않고 말로 이야기하니 정말 좋구나.”, “소리 지르지 않고 이야기 하다니 ○○가 많이 큰 것 같네.”와 같이 말해 줄 수 있습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 Six-factor Temperament Scale 영·유아용 결과보고서

2026/05/29

SAMPLE

남

만 05세00개월

5. 사회적 민감성

SAMPLE 아동의 사회적 민감성 수준은 '낮음' 수준입니다.

아이는 타인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자신'에 더 관심이 많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 어린 연령임에도 독립적인 아이로 여겨지곤 합니다. 또한, 또래관계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 친구 없이도 혼자서 시간을 잘 보냅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입장을 중요시하는 반면,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거나 공감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중심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눈치가 없고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나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친밀한 또래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사회성 발달과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에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아이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볼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낮음] 수준의 사회적 민감성을 보이는 아이를 위한 양육 Tip

- ①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입장과 감정을 느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일상생활 속에서 “네가 저 아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동화책이나 영상을 보면서 등장인물의 감정, 생각, 입장에 대해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아이는 눈치 없이 행동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나 꾸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의 타고난 성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여기되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③ 양육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자의 몸짓과 행동, 말을 통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양육자가 공감적이고 친사회적인 언행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④ 아이가 가정이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에서 예의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쁜 의도에 의한 것이기 보다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에게 타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며, 아이가 예의 바른 행동을 했을 때는 충분히 칭찬해주어야 합니다.
- ⑤ 아이는 또래와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만의 놀이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시기에는 또래와의 놀이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친구와 놀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 ⑥ 이 시기 아이에게는 놀이를 통한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놀이 속의 인물을 통해 타인의 감정과 마음을 인식하고 적절한 사회적 반응과 행동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 ⑦ 친구와 나누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세요. 친구와 장난감이나 먹을 것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아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충분히 지지하고 칭찬해주세요. 소유물과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의미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 Six-factor Temperament Scale 영·유아용 결과보고서

2026/05/29

SAMPLE

남

만 05세00개월

6. 의도적 조절

SAMPLE 아동의 의도적 조절 수준은 '낮음' 수준입니다.

아이는 관심과 흥미가 다양한 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할 때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주변을 탐색하거나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반복되고 지루한 것을 견디기 힘들어 하는 반면, 규칙이나 약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우며 의외의 창의성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는 또래에 비해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무언가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아이가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과제나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조절력은 인지발달이나 학업성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참고 인내하는 능력은 일정 부분 타고나지만, 어느 정도는 양육을 통해 길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동기 동안 아이가 조절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낮음] 수준의 의도적 조절을 보이는 아이를 위한 양육 Tip

- ① 집중력과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 아이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은 반감을 불러일으켜 아이가 양육자의 지시나 과제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양육자 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②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집중하여 끝까지 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낌없이 아이를 칭찬해주세요. 양육자의 인정과 칭찬은 아이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길고 복잡한 과제는 아이를 좌절시켜 과제에 대한 동기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과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작은 과제일지라도 성공 경험이 누적되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결국 아이는 어렵고 힘든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 ④ 집중력과 참을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 반복적인 부정적 평가를 듣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면서 아이는 더욱 산만하고 부주의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아이의 성향과 특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⑤ 아이의 집중력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학습(예, 플래시 카드, 영어 듣기, 글자나 숫자 가르치기, 책 읽기 등)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 또는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활동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양육자의 지시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⑥ 아이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는 편입니다. 아이가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만한 것들이 있는지 주위를 살피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⑦ 아이의 산만함과 부주의함으로 인해 양육자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필요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보다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 Six-factor Temperament Scale 영·유아용 결과보고서

2026/05/29

SAMPLE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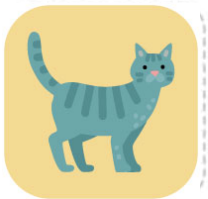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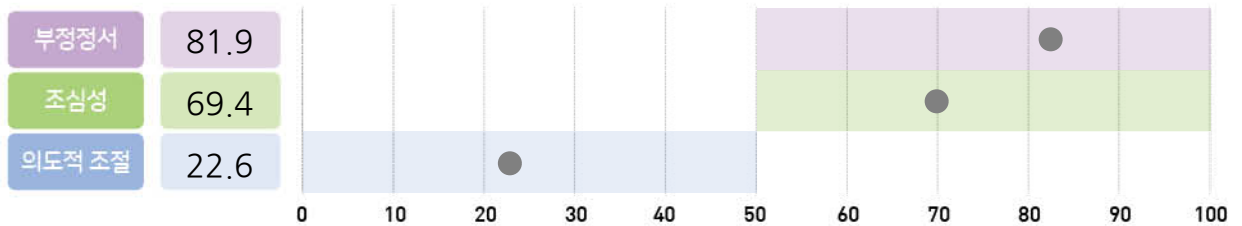
만 05세00개월

동물 유형 해석이란?

정서, 행동, 주의조절을 대표하는 세 요인인 부정정서, 조심성, 의도적 조절을 조합하여 8가지 동물 유형으로 표현하여 제시합니다. 세 요인을 백분위 50을 기준으로 높음/낮음으로 나누어 8가지 동물 유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기질적 성향을 깊이 있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양육 코칭을 제공합니다.

동물 유형 결과

(단위: 백분위)



세 요인을 기반으로 분석한 아동의 동물 유형은 고양이 유형입니다.

아이는 솔직하고 개성이 강한 편이지만 경계심이 많아 놀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고양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아이가 예민하고 까다로운 편이며,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유형 아이는...

-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솔직하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한 편입니다.
- 일상의 사소한 자극이나 작은 변화도 쉽게 알아챌 수 있어 눈치가 빠르고 섬세한 아이라는 평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 정해진 규칙이나 규율에 얽매이기 보다 자유로우며 주관이 뚜렷한 편입니다.
- 조심성이나 경계심이 많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주세요!

- 아이는 예민하고 민감한 편으로, 별일 아닌 것에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불편감을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는 것, 처음 해보는 놀이나 활동을 시도해야 되는 상황을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 어색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며, 이런 경우 양육자의 설득에도 쉽게 타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 번 기분이 나빠지면 진정이 잘 안되어, 양육자가 달래주어도 기분이 풀어지기 어려우며 좋은 기분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소소하게 불평불만을 호소할 때가 잦으며, 드물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폭발하듯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 Six-factor Temperament Scale 영·유아용 결과보고서

2026/05/29

SAMPLE

남

만 05세00개월

아동 유형에 맞는 양육 코칭

고양이 유형 아이에게는

양육자의 민감함과 배려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양육자가 기분이나 충동 조절의 대행자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상치 못한 사람이나 상황, 자극에 맞닥뜨렸을 때 다른 아이에 비해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가 충분히 준비한 후 스스로 움직여 다가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가 힘들어 할 때는 아이의 감정을 잘 살펴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기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기분이 누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씩 정서를 표출하고 자기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양육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건강한 감정표현 방식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의 부정적인 정서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경우, 주의를 전환하거나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나 친구와 싸워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잠시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 기분을 진정하게 할 수 있고, 놀이나 과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짜증을 내면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다른 활동을 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용기를 내거나 적극성을 보이는 경우, 참을성이나 인내심을 발휘하는 경우, 혹은 상황에 맞게 기분을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경우, 충분히 칭찬해주어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양육자가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이는 자신의 성향을 잘 살려 민감하고 섬세하면서도 자유롭고 솔직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 유형	부정정서	조심성	의도적 조절
얼룩말	낮음	낮음	낮음
리트리버 강아지	낮음	낮음	높음
코알라	낮음	높음	낮음
거북이	낮음	높음	높음
원숭이	높음	낮음	낮음
사자	높음	낮음	높음
고양이	높음	높음	낮음
고슴도치	높음	높음	높음



STS 6요인 기질검사 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최신의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는 최신의 발달심리 이론과 연구들에서 공통적이고 안정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6개 요인(활동성, 조심성, 긍정정서, 부정정서, 사회적 민감성, 의도적 조절)**을 기초로 개발되었습니다.

최신 기준을 제공합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는 8년간 전국의 약 1만 4천여 명의 영유아/아동/청소년/성인이 참여하여 영아용, 유아용, 아동용 (부모보고형/자기보고형), 청소년용, 성인용(기본형/확장형)이 개발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신뢰롭고 세밀한 결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정서적 기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는 인간의 타고난 성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정서적 기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서는 개인 차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개인 내적 차원, 대인관계, 직업 및 학업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정서는 단일 차원이 아닌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2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최신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정서적 측면을 더욱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양육자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자녀의 문제행동 및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증명된 **3개의 요인(부정정서, 조심성, 의도적 조절)**을 조합하여 유형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단일한 특성이나 성향으로 이해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존재이며,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할 때 그 표현 방식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에서는 아이의 기질 요인의 조합을 설명하고 **적절한 양육 코칭**을 제공하여 실제로 양육에 도움을 줍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 Six-factor Temperament Scale 영·유아용 결과보고서

💡 Good Parenting(좋은 양육)을 위해서는 기질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아이의 기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의 기질을 정확히 이해하여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양육**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질 육아입니다.

일상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엉뚱하다고 생각했던 아이의 행동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기질은 타고난 성향이며 아이의 행동, 감정, 생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아이가 적응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기질적 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주세요. 기질은 마주한 환경에 따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기질 특성을 바탕으로 아이를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아이를 더욱 수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 양육자 자신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이와의 갈등이 반복되거나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 원인 중 하나는 아이와 양육자의 기질 차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아이와 양육자가 서로 다르게 느끼고 반응하면서 어려움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아이의 행동 중 기질과 관련된 부분은 변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양육자 자신의 타고난 기질 역시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보기보다, 서로의 타고난 특성을 이해하고 맞춰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슷한 특성의 아이라도 가정의 분위기와 관계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양육자의 기질을 함께 이해하면 서로의 행동, 감정, 생각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갈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STS 6요인 기질 검사는 영아용, 유아용, 아동용(부모보고형/자기보고형), 청소년용, 성인용(기본형/확장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